

“코로나 재확산에 한푼도 못벌었다” 43%

광주·전남 소상공인 실태조사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500만~1천만원 매출 감소' 30% 5명 중 4명 "2차 재난지원금 골목상권·지역경제 호전 기대" 대출·별도 재난수당·임대료 지원 등 정부·지자체 정책 원해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끝이다 써도 임대료 내는 것조차 박차 잡도 잘 수 없어요. 하루 빨리 2차 재난지원금이 나오길 바랍니다.”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 43%는 코로나 19 재확산이 일어난 지난 달 중순 이후 '한푼도 못벌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초(13.8%)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5명 중 4명 이상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상공인 375명 중 43.3%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매출액이 "100% 줄었다"고 답했다. 지난 달 중순 이후 이달 초까지 보름간 매출이 단 '1원'도 없었다는 말이다.

또 매출이 '90% 감소'했다는 답변도 17.5%에 달했고, '80% 감소' (16.4%), '50% 감소' (12.9%) 등 매출이 반 토막 이상 줄었다는 답변율은 전체의 90%를 육박했다.

같은 기간 매출 피해액에 대해서는 '500만~1000만원 미만' 손해를 봤다는 답변율이 29.7%로 가장 많았다.

'100만~500만원 미만'이 28.1%로 뒤를 이었고, ▲1000만원 이상 17.6% ▲2000만원 이상 8.0% ▲3000만원 이상 7.5% ▲5000만원 이상 3.7% ▲4000만원 이상 2.7% ▲매출 피해 없음 2.7% 순이었다.

지역 소상공인 5명 중 3명 꼴(59.9%)로는 코로나 2차 확산 이후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대출이자 부담 비율도 18.3%로 높았고 인건비(8.9%),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통신요금 등 공과금(5.1%), 소득세·부가세·재산세 등 세금(4.6%),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3.2%)가 뒤를 이었다.

반년째 매출 부진을 겪어온 지역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끝내 폐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사업 전망을 묻는 질문에 49.5%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미 폐업상태일 것이라는 응답률도 20.3%에 달했다. 사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 같다는 답변은 30.2%에 불과했다.

광주·전남 소상공인이 '2차 재난지원금'에 거는 기대는 상당했다.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매우 호전(13.1%)과 다소 호전(71.3%) 등 84.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급 후에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11.9%였고, 매우 악화(1.6%)되거나 다소 악화(2.1%)될 것이라는 비관론적 시각도 있었다.

2차 지원금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86.4%로, 다소 필요(9.9%), 다소 필요하지 않음(1.1%), 매우 필요하지 않음(1.3%), 잘 모르겠음(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 소상공인이 가장 크게 바라고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정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실시' (36.9%)가 꼽혔다.

'별도 소상공인 재난수당 지원'이 27.8%

로 뒤를 이었고 ▲임대료 지원 14.4%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9.6% ▲부가세 등 직·간접세 세제감면 6.7%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3.5% ▲소상공인 특화 경기부양 대책 실시 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감면해졌으면 하는 공공금으로는 전기요금(48.8%)을 가장 먼저 들었고, 지방세 및 국세(42.1%), 도시가스요금(1.3%), 전화요금(1.1%), 상하수도요금(0.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광주 244명·전남 131명 등 전국 3415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했다. 50~60대 연령층이 절반(46.2%)을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개인서비스업(48.9%), 숙박 및 음식점업(12.2%), 도·소매업(10%) 순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성녹차로 물들였어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나연)은 3층 특설매장에서 오는 27일까지 보성 천연염색공예관을 운영하는 지역 사회적기업 '숨'과 함께 보성녹차 등 천연염료로 제작한 제품을 선보인다. <롯데쇼핑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3.58 (+15.67)	▼ 금리 (국고채 3년)	0.907 (-0.012)
▲ 코스닥	899.46 (+5.29)	▼ 환율 (USD)	1179.00 (-4.50)

광주·전남, 코로나에 수출·입 '뚝'

1~8월 수출 14.6%·수입 26.6% 감소 무역수지 흑자... 전년비 54% 늘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크게 줄었다.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8월 광주·전남 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한 36억 9700만 달러, 수입은 37.0% 감소한 23억 8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3억 1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월 14억 3000만 달러에 비해 1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6억 3100만 달러 흑자를 보였고, 전남은 6억 8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 초부터 지난 달까지 집계하면 수출은 14.6% 줄었고, 수입은 26.6% 줄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억

달러보다 54% 증가한 70억 85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었으나,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광주가 수송 장비(25.3%), 반도체(15.1%), 가전제품(84.3%) 등 수출이 증가한 반면, 기계류(19.4%)는 줄었다.

수입은 반도체(1.2%), 가전제품(14.5%), 고무(58.5%), 화공품(23.7%)이 감소했다.

전남은 수송 장비(413.6%), 기계류(61.0%) 수출이 늘고 원유(43.4%), 석탄(61.3%), 석유제품(57.5%), 철광(24.4%) 등은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현산, 금호산업에 2500억 반환 소송 예고

아시아항공 인수 무산에 침묵을 지키던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지 나흘만인 15일 처음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나타냈다.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채권단과 금호아시아에 돌리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사실상 계약금 2500억원의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이날 입장문에서 '종합 모빌리티 그룹' 비전과 아시아항공 인수 의지를 재차 설명했다. 또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항공에 대한 재실사가 반드시 필요한 점에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부당 지원 행위를 문제삼아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경영진,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언급했다.

법률 리스크가 현실화해 거래 종결시 임직원의 배임은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실사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현산의 주장이다.

그동안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현산의 재실사 요구에 대해 인수 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현산은 지난 달 26일 이동철 산은 회장과 정명규 HDC그룹 회장의 '최종 담판'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면담에서 구체적인 안이 논의된 바가 없는 데도 언론에 '1조 할인' 등이 보도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현산은 "산은은 이후 언론에 대한 대응은 일방이 하지 말고 서로 조율해서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의의 달이 후부터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산이 이메일을 보내 재실사를 고수했다며 산은이 인수 무산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도 "아시아항공의 현재 재무상태와 경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 존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후에는 인수조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산은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뒤늦은 설명을 내놨다.

이처럼 그동안 최종 면담 결과와 이메일 답변 등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던 현산이 뒤늦게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 계약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채권단과 금호산업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이를 토대로 2500억원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현산의 입장문 내용을 토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서비스 확대

더치페이·용돈조르기·스마트알림 등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스마트뱅킹(APP)에 고객편의 기능을 더한 '더치페이', '용돈조르기', '스마트알림' 등의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펀(Fun) 서비스'로 불리는 이들 서비스는 송금 및 알림 서비스와 같은 단순한

금융거래에 편리함과 재미를 더했다.

더치페이는 각자 부담할 비용에 대해 요청자가 계좌정보 및 입금금액을 입력해 전송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림 메시지가 발송되고, 메시지 수신자가 요청자에게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용돈조르기는 재치있는 카드와 메시지로 용돈을 요청하고 메시지 수신자가 요청한 금액과 계좌정보를 확인해 쉽게 송금할 수 있다. 스마트알림은 입출금계좌의 잔액변동 및 잔액부족에 대한 알림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스마트뱅킹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 ▲거래내역 메모 등록 ▲오픈뱅킹(다른은행 계좌)과 통합거래가 가능한 이체 ▲고객아이디어 제안, 자연이체, 입금계좌지정, 팩스이메일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존' ▲노년층을 위한 '큰글씨이체' ▲스마트폰으로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스마트ATM출금' ▲비슷한 연령대와의 자산비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신규 등록했다.

광주은행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펀 서비스' 3종을 이용한 고객 중매월 추천을 통해 모바일쿠폰을 발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9월호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연희네 슈퍼

특집

가을에 '뉴트로' 하실래요?

문화상품, 카페, 생필품 북고 마케팅 열풍 90년대 감성 그룹, 레트로 음반 러시 여기가 레트로 '캠성' 넘치는 곳

기획

화가가 사랑한 정원 모두의 명소가 되다

건축현 '운보의 집' 모네의 정원 민병희씨의 화가의 정원사재

문화는 품은 건축물 2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빼어난 건축미 입소문 신안 압해읍종합복지회관

클릭, 문화현장 3

목욕, 주얼리, 도자기 등 체험 양림 팽진마을 공예특화거리

예향이 만난 이 사람

KIA 타이거즈 마운트 고철 루키 셋백 정해영

예향 초대석

한복 디자이너·전통 복식연구가 김혜순

"한복 짓기는 자기다움 찾아가는 것"

우리 땅 우리 문화 3

'불법이 머문' 천년 고찰 속리산 법주사

문화 트렌드

5060 세컨드라이프 '슬기로운 집콕생활'

철학적 최신식과 책 읽고 건너가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프로그래밍 심장을 짝 피자"

8월의 책,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전시 리뷰

이강미술관 <2020 Earth & Museum 7차 기획전>전

스포츠 회재

'가난한 꿈부자' 레슬링영웅 김원기 3주기

유연준의 도시건축 3

부동산 정책의 정치학

백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5

세계가 열광, 한류 스타의 어제와 오늘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3

바그너의 '종합예술' 혁명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3

화가 라퀼닉의 할매공방

자연속 가을과 겨울

곡서 정가 4월

- 섬진강과 철길 따라서 - 트릴 토란, 명품 멜론